

1

다르면서 같은 책

◎ 장르 접чин 복합문화적 출판 : 제 3 세계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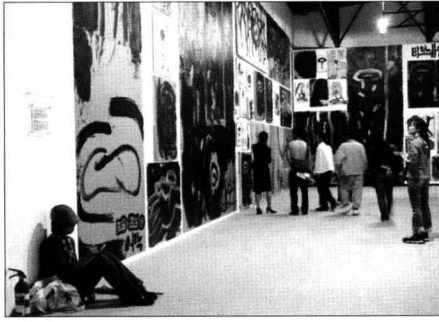
김병중 (서울대학교수·화가)

요즘 한 출판사의 권유로 세 사람 공저의 한 책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필자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세 사람 공저이긴 한데 다른 두 분의 필자와 달리 나는 원고가 아닌 60여 컷의 그림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주제는 '생명'. 다른 두 분의 필자는 각각 생명공학과 생물을 연구하는 분이어서 언뜻 화가인 나와는 양상불이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두 분의 필자가 오랫동안 과학자의 눈으로 생명을 연구해 온 것처럼 나도 꽤 긴 세월을 나름대로 생명 주체의 그림에 천착해 왔으니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셋의 결합이 이질적인 것은 사실인데 다른 목소리들로 하나의 화음을 내는 것이니 우려가 없는 바 아니지만 자못 기대가 되기도 한다.

출판사 쪽에서는 뻑뻑한 활자만을 보기가 다소 지루할지 모르니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나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단, 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삽화 형태는 싫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림 그 자체로서 '생명' 메시지에 접근하고 싶었던 까닭이다. 어쩌면 반쯤은 간이 화집인 기묘한 책이 될 것 같다.

2



1 예술과 출판에서 장르가 겹친 복합문화와 그로 인한 제3의 창작 세계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과 출간 도서가 어우러진 대형서점 풍경.

2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김병중 교수의 <피와 꽃-비보예수에서 생명의 노래까지> 전시회.

요새의 퓨전 문화를 본뜨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언뜻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장르를 겹쳐 책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철학자와 음악가가 만나서, 공학자와 도예가가 만나서, 법학자와 수학자가 만나서, 무용가와 의학자가 만나서, 소설가와 물리학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제3형태의 책들이 출간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 단순히 재미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지평을 훨씬 넓혀 놓을 것 같다.

예전에 어떤 미래학자가 예견하기를 앞으로의 세계는 단일한 한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더 나아가기가 어렵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해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예컨대 역사면 역사, 화학이면 화학, 지리면 지리 같이 한 우물만 파는 것은 미덕이 못 된다는 것이다. 단일품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분야마다 고갈이 나고 있어서 인접 혹은 원근의 서로 다른 분야끼리의 만남, 또는 합성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와 한집에 사는 탓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소설도 읽지 않고 시집도 팔리지 않는다는 푸념을 조석으로 듣고 있다. 영상과 같은 더 직접적인 시각 매체에 문학 독자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에 대해 영화 관객 따로 있고 소설 독자 따로 있다고 반박을 하지만 컴퓨터와 영상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왕성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 20,30대가 책장을 넘기

● 이 글을 쓴 김병중은 화가로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일본, 폴란드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고 미술기자상, 선미술상, 한국미술작가상 등 다수의 미술상을 받았다. 한편 문학청년이던 대학시절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고, 대한민국 문학상, 삼성문화재단 저작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 <중국회화연구>(서울대출판부,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 <먹으로 그린 새가 하늘로 가네>(화문집, 비룡소)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 대 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기보다는 자판을 두드리고 컴퓨터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들을 어떻게 책으로 유인해 내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내용도 깊이도 없이 가벼운 볼거리 읽을거리로만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앞에 든 두 과학자와 한 화가와 같은 이질성의 결합과 같이 인접 혹은 다른 요소와의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광주비엔날레에는 참여관객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이채를 띠었다. 설치미술가와 농부, 화가와 철학자, 조각가와 여중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창작에 동원되어 함께 작품의 방향성을 의논하고 심지어 제작에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요컨대 생산자의 일방적인 작품 생산에 관객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놓고 처음부터 고민하고 함께 모색한다는 것이다.

나도 비엔날레의 본 전시에 초대되어 높이 7미터에 넓이만 30여 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벽면을 법학자 한 분과 공동으로 채우게 되었다. 내 전시에 참여 관객으로 공동작업을 하게 된 법학자 안경환 교수는 한사코 자신은 공동작업을 했다고 할 수 없고 무임승차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작품 제작을 앞두고 내게 제공한 '생명' 주제의 글과 사진들(지극히 개인적인)은 나의 작품 발상과 전개에 적지 않은 시사를 준 것이 사실이었다.

법학자이면서 인문학과 예술의 소양을 폭넓게 갖추고 있는 안 교수와의 비엔날레 공동작업은 내게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림에 철학적 깊이 같은 것을 붙여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 전반과 출판에 있어서 장르가 겹쳐 창출되는 제3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 미술과 철학, 음악과 물리학, 공학과 문학, 의학과 무용, 천문학과 해양학 등이 어우러지는 제3의 책, 이런 책의 출판을 권유해 보고 싶다. 이에 독서 연령이 내려갈수록 그 취향이 다양, 다기해져서 그런 문화 속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를 안 읽는다, 소설이 안 팔린다, 인문학이 죽어간다고 하기 전에 한번쯤 이런 복합문화적 출판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병중**